



설화수, 아름다움의 진가를 논하다 문화로 통하는 외교 이야기

낯선 한국행 비행기에 처음 몸을 실은 것이 벌써 3년 전. 처음엔 모든 게 벽차기만 했다는 미하엘라 보프코바 주한 체코 대사 부인은 이제 한국 생활이 끝나는 날이 다가오는 게 두렵다고 했다. 1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누는 그녀는 이미 가슴 깊이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있었다. **에디터 박세미(smpark@noblesse.com) 사진 안지섭**

적당히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전형적인 늦가을 날씨의 어느 날, 미하엘라 보프코바(Michaela Vovková) 주한 체코 대사 부인을 만나기 위해 한남동 언덕을 굽이굽이 올라 대사관저에 도착했다. 높은 담장 뒤에 숨은 다소 딱딱한 분위기의 관저를 상상한 것과 달리 소담한 정원과 한쪽에 놓인 미끄럼틀이 어린아이가 뛰노는 집임을 한눈에 알 수 있게 한다. “요즘 한국 날씨는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하늘은 높고 푸르며, 바람도 신선하죠. 하지만 한국의 가을이 점점 짧아지는 것 같아 아쉬워요. 맘껏 즐기고 싶은데 도통 시간이 나질 않네요”라고 말문을 연 그녀는 미하엘라 보프코바라는 한글이 선명한 볼드체로 박힌 명함을 건넨다. 장미를 프린트한 회색빛 투피스에 진주 목걸이를 매치한 그녀는 한눈에 보아도 아름답고 기품이 넘쳐흘렀다.

남편과 함께 아프리카 짐바브웨에서 한국으로 이주한 지 어언 3년. 한국에 처음 왔을 때 한 살배기였던 어린 아들은 어느새 네 살이 되어 유치원에 다닌다. 그날도 집 근처에 있는 유치원에 아이를 데려다주고 왔다는 그녀는 아들 이야기가 나오자 입가에서 웃음이 가시지 않는다. “아들은 <뽀롱뽀롱 뽀로로>를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매일 아침 EBS 교육방송을 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

숨겨진 진가를 발견하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인지. 깊이 있는 아름다움을 전하는 설화수가 아름다움의 진가에 대해 논한다.

췌, 아기일 때 한국에 와서인지 한국 사람이 다 된 아들을 볼 때마다 신기하고 대견해요. 때로 사람들이 어디서 왔느냐고 물으면 ‘아임 프롬 코리아(Im from Korea)’라고 당연스레 대답한다니까요.” 그녀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모든 게 막막했다고 당시를 회상한다. 길거리의 간판도, 책도, TV도 보고 읽을 수 없는 까막눈이었기에 더 두려움이 컸다. 지금도 한국어를 보고 읽을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한국 사람들의 진심에서 우리나라 친절을 경험한 후로 한국이 제2의 고향같이 편하기만 하단다. 외교사절로서 립 서비스가 아니라 그녀는 정말 한국인의 생활 속으로 깊숙이 들어온 것 같았다. 제주 흑돼지의 참맛과 펼 펼 끓는 떡볶이 순두부찌개의 얼큰함을 알고, 밥을 하기 싫을 땐 집 근처 평범한 한식당에서 한 끼를 때우거나 음식을 배달시켜 먹는다. 또 고급 부티크 대신 명동 거리를 거닐며 쇼핑하는 것이 훨씬 즐겁다고.

뽀로로를 좋아하는 그녀의 아들뿐 아니라 세 가족 모두 한국 문화, 특히 대중문화에 관심이 많다고 한다. 대중문화만큼 각 나라를 하나로 이어주는 매개체도 없다고 믿는 그녀. 아들은 한국의 애니메이션을, 남편은 한국 가요를, 그녀는 한국 드라마를 즐겨 보고 듣는다고. 한국 드라마는 알아들을 수는 없어도 정작 초기, 한국 문화와 정서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몇 년 전 한국에서 방영한 프라하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 <프라하의 연인>은 그녀에게 더욱 특별하게 다가왔다. 문화 이야기를 나누다 대화는 자연스레 9월 30일부터 11월 5일까지 서울에서 열리는 ‘체코 포인트 인 서울’ 이벤트로 이어졌다. 이 이벤트에 관해 묻자 그녀의 눈이 더욱 반짝거린다. 체코 포인트 인 서울은 연극, 영화, 뮤지컬, 사진, 음악, 무용 등 체코의 다양한 문화를 서울에 소개하는 이벤트다. 최고로 손꼽히는 23개의 체코 문화 예술 작품을 한국에 선보이기 위해 꽤나 오랜 시간 준비해왔다고 힘주어 말하는 모습에서 한국과 체코의 대중문화 교류에 관한 대사 부부의 열정을 엿볼 수 있었다.

인터뷰를 잠시 멈추고 사진 촬영을 위해 포즈를 취하는 그녀를 멀리서 바라보니 아이 엄마라기엔 군살 하나 없는 몸매와 맑고 투명한 피부가 눈에 들어온다. 그녀에게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비결에 대해 물으니 뜻밖의 대답이 돌아온다. “특별히 하는 운동은 없어요. 다만 아이를 유치원에 걸어서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정도죠. 먹는 것을 좋아해 먹고 싶은 것도 다 먹는 편입니다. 아이를 낳기 전보다 살이 쪼들지만 스트레스 받지 않아요. 진정한 아름다움은 사이즈나 이목구비 등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에 있죠. 내면에서 우리나라의 카리스마와 긍정적 에너지, 이것이 가장 중요한 미의 요소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하는 그녀의 얼굴에서 세월의 흔적에 관한 두려움 같은 것은 찾아볼 수 없었다.

한국에 온 지 3년. 그녀는 벌써부터 한국을 떠날 날이 점점 다가오는 게 두렵다고 한다. 또 한국을 자기 조국처럼 여기는 아들이 이곳을 떠나면 힘들지 않을까 걱정도 앞선다고. 마음 같아서는 20년 정도 더 머물렀으면 좋겠다고 농담을 건네는 말에서 진심이 느껴진다. 또 다른 낯선 곳의 새로운 삶이 기대되기보다 아직은 한국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싶은 일이 많다는 그녀. 낭만의 나라 체코 프라하와 사랑에 빠진 한국의 여행객처럼 그녀는 한국과 순도 100%의 교감을 나누고 있었다. ◆

설화수가 미하엘라 보프코바 님에게 진정한 아름다움을 전합니다.

최고급 라인의 정수. 최고 가치를 담은 진설. 청정 지역의 적송 성분을 담아 피부 생명의 근본을 다스리며 오방중실의 귀한 원료가 절고 건강한 피부로 되돌린다. 깊은 향과 풍부한 사용감이 잊지 못할 감동을 선사한다.

